

오승환의 위대한 여정, 역대 최초 한미일 500세이브까지

KBO리그 378세이브·일본 80세이브·미국 42세이브

KBO리그 최초 통산 400세이브에도 도전...22개 남아

삼성 라이온즈 오승환(41)이 역대 최초 한·미·일 통산 500세이브를 달성했다.

오승환은 6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SOL KBO리그 NC 다이노스와 경기에 팀이 9-6으로 앞선 9회초 마운드에 올랐다.

오승환이 모습을 드러낼 때부터 관중석은 물론 삼성 더그아웃까지 들쭉였다.

이날 경기 전까지 한·미·일 통산 499세이브를 기록 중이던 오승환의 500세이브 도전 무대였기 때문이다. 오승환은 일본프로야구(2014~2015년)에서 80세이브, 미국 메이저리그(2016~2019년)에서 42세이브를 수확했다. KBO리그에서는 이날 경기 전까지 통산 377세이브를 기록 중이었다.

오승환은 첫 타자 손아섭에 중전 안타를 맞았다. 하지만 더 이상의 출루는 허락하지 않았다.

무사 1루에서 서호철을 2루수 직선타로 잡아내고, 천재환을 헛스윙 삼진 처리했다.

손아섭의 도루로 2사 2루에 놓였지만 제이

슨 마틴을 7구 승부 끝에 1루수 땅볼로 처리하며 경기를 마쳤다. 최초의 한·미·일 통산 500세이브가 완성된 순간이다.

2005년 삼성에 입단한 오승환은 곧 KBO리그를 대표하는 마무리 투수로 우뚝 섰다.

풀타임 마무리 투수 첫 해였던 2006년부터 47세이브를 작성해 KBO리그 역대 단일 시즌 최다 세이브 신기록을 세웠다.

2007년 9월 8일 광주 KIA 타이거즈전에서 KBO리그 역대 최소경기(180경기) 통산 100세이브를 거둔 오승환은 2011년 8월 12일 대구 KIA전에서 최연소(29세28일)·최소경기(334경기)로 통산 200세이브를 달성했다. 그해 다시 한 번 47세이브를 올리며 평균자책점 0.63을 기록하기도 했다.

2012년 7월 1일 대구 넥센 히어로즈(현 기아 히어로즈)전에서는 통산 228세이브를 거둬 김용수가 가지고 있던 KBO리그 역대 통산 최다 세이브 기록(227세이브)도 넘어서었다.

해의 진출 전까지 5차례 구원왕에 올랐던 오승환은 일본과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마무리

투수로 활약했다.

KBO리그로 복귀해서도 여전히 위력을 과시했다. 2021년 44세이브를 챙기며 개인 통산 6번째 세이브 1위 타이틀을 차지했다.

올 시즌 전까지 한·미·일 통산 492세이브를 기록 중이던 오승환은 개막과 함께 500세이브 도전에도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올해 오승환은 극심한 부진에 고전했다. 계속된 난조에 개막 첫 달인 4월 중간 투수로 자리를 옮겼지만, 구위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했다.

예전과 다른 오승환의 모습에 은퇴설까지 흘러나왔다.

오승환은 그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달 3일 키움과 경기에서 데뷔 19년 만에 첫 선발 등판에 나서며 반등 포인트를 마련에 나섰다. 당시 경기에서 5이닝(3실점) 동안 73개의 공을 던지며 다시 투구 감각 되찾기에 나섰다.

이후 마무리로 제 자리를 찾은 오승환은 다시 세이브 사냥에 나섰다.

그리고 이날 실점을 허락하지 않는 투구로 팀의 승리를 지켜내며 마침내 한·미·일 통산 500세이브를 신고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500세이브를 넘긴 투수는 마리아노 리베라(652세이브)와 트레버 호



6일 오후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신한은행 SOL 2023 KBO리그 NC 다이노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 9대6으로 승리한 삼성 마무리 투수 오승환이 한·미·일 통산 500세이브를 달성한 뒤 포수 강민호와 포옹을 하고 있다.

프만(601세이브) 두 명뿐이다. 일본프로야구에서는 이와세 히토키의 407세이브가 최다 기록이다.

한국과 일본, 미국에서 모두 세이브를 거두며 통산 500세이브 고지를 밟은 선수는 오승환이 처음이다.

오승환의 도전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KBO리그 통산 400세이브에는 22개만을 남겨뒀다. 400세이브를 달성하면 역시 최초가 된다.

구례군, '제15회 전국여자천하장사 및 대학장사 씨름대회' 개최

오늘부터 11일까지 4일간 총 45개 팀 349명 참가

구례군은 오는 6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구례실내체육관에서 제15회 구례전국여자천하장사 및 대학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한다.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구례군씨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 대학부 17개 팀 209명, 여자부 19개 팀 116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모래판 위에서 뽐낼 예정이다.

대학장사 대회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누어 치러지며, 개인전은 7체급(경장, 소장, 용장, 용사, 역사, 장사)으로 구분하여 치러진다.

여자장사 대회는 1부(전문체육) 2체급(대화, 국화), 2부(생활체육) 3체급(대화, 국화, 무궁화)으로 구분하여 장사를 가르고, 마지막 날에는 체급에 상관없이 모든 선수가 출

전하여 여자천하장사를 선별한다.

김순호 군수는 "구례군을 방문한 선수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대회가 선수들이 노력의 결실을 맺는 뜻깊은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3일간 MBCSPORTS+ 채널 및 유튜브(더 씨름_Live)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대회 기간 중 매일 추첨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냉장고, 자전거, 성인용 보행기, 예초기, 쌀 10kg 등 푸짐한 경품이 증정될 예정이다.

여자씨름의 발상지인 구례군은 전국 최초의 여자씨름단인 구례군청 씨름단을 창단·운영하고 있으며, 여자씨름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15년째 여자씨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구례=박진호기자



여자 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이 연고지 광주로 클럽하우스를 이전했다. (사진=페퍼저축은행 제공)

여자배구 페퍼저축은행, 연고지 광주로 클럽하우스 이전 완료

여자 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이 연고지 광주광역시로 클럽하우스 이전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구단은 "홈 경기장인 페퍼스타디움 내 훈련장과 트레이닝 시설을 마련했다. 속소는 페퍼스타디움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의 아파트 시설을 활용하며, 아파트 내 선수 전용 식당과 치료실 등도 갖췄다"고 전했다.

이어 "구단 운영 및 훈련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광주 지역 내 구비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연고지 정착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1년 9월 공식 출범한 '막내 구단' 페퍼저축은행은 2021~2022시즌 V-리그 참가를 위해

서둘러 훈련 시설을 마련하면서 연고지인 광주가 아니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시설을 대어해 사용해왔다.

구단은 "이번 이전으로 이동거리가 연간 약 2000km 가량 단축돼 선수들의 컨디션 향상도 기대된다. 선수들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동원 페퍼저축은행 단장은 "이번 이전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배구 문화 정착 및 저변 확대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며, 지역 사회의 팬들에게도 한층 더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16년 축구인생과 작별한 '멀티 수비수' 박주호

빠른 발·저돌적 돌파로 측면 공격수와 미드필더·수비수까지 모두 가능



수원FC 박주호가 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원종합운동장에서 프로축구 '하나원큐 K리그1 2023' 1라운드 수원FC와 울산 현대의 경기에 앞서 진행된 은퇴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프로축구연맹 제공)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박주호(36)가 16년 정글 그라운드와 작별했다. 팬들은 국내외 리그와 대표팀을 오가며 몸을 아끼지 않은 그를 아낌없는 박수로 떠나보냈다.

박주호는 지난 6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울산 현대와의 하나원큐 K리그1 2023 1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로 나와 후반 46분 최보경과 교체될 때까지 뛰었다.

박주호의 마지막 투혼 속에 수원FC는 전반 16분 윤빛가람의 선제골로 앞서갔다.

수원FC는 이날 박주호의 은퇴 경기를 승리

로 장식하기 위해 이전보다 훨씬 높은 집중력을 발휘했다.

울산이 60%가 넘는 높은 점유율에도 전반에 수원FC 골문을 열지 못한 배경이다.

하지만 후반에 체력이 떨어지면서 팀 밸런스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박주호가 몸을 사리지 않는 수비를 선보였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후반에만 내리 3골을 내주며 1-3으로 역전패했다. 이렇게 박주호의 고별 경기는 막을 내렸다.

박주호는 친정팀 울산을 상대로 한 은퇴 경기 전부터 감정에 복받친 듯 눈시울을 붉혔다.

세 자녀 나온, 건후, 진우와 함께 그라운드에 나갈 땐 흐르는 눈물을 참으려고 한동안 하늘을 바라보기도 했다.

팬들의 특별한 응원과 감동을 줬다. 경기 도중 박주호의 기념 카드 색션이 펼쳐졌고, 전반 6분에는 등번호 6번인 박주호를 위해 60초간 팬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이날만큼은 경기가 끝난 뒤 주인공은 승리팀인 울산이 아닌 박주호였다.

수원FC 서포터스는 물론 친정팀 울산의 서포터스도 떠나는 박주호에게 기념 박수를 보냈다. 뜨거운 환대에 박주호도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2008년 일본 J2리그 미토 홀리호크에서 프로 데뷔한 박주호는 가시마 애틀러스, 주빌로 이와타(이상 일본)를 거쳐 2011년부터 FC바젤(스위스)로 이적해 유럽 무대에 진출했다.

이후 마인츠, 도르트문트(이상 독일) 등에서 뛰다 2018년 울산 유니폼을 입고 국내 무대를 밟은 뒤 수원FC에서 축구화를 벗었다.

태극마크를 달고도 국제대회에서 맹활약했다. A매치 40경기에 나섰다, 1골을 넣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와일드카드로 나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같은 해 브라질월드컵을 경험했다.

또 2015년에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준우승 멤버로 활약했다. 비록 부상으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도 나섰다.

박주호는 빠른 발과 저돌적인 돌파로 측면 공격수와 미드필더, 수비수까지 모두 가능한 멀티 플레이어였다. 2015 호주 아시안컵 때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며, 상황에 따라 측면 수비를 보좌하는 역할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뉴스

호날두·벤제마 영입한 사우디...손흥민까지 노리나

한국 축구의 간판이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 출신 손흥민(토트넘)이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로 진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럽축구 소식에 정통한 미국 CBS스포츠 소속 벤 제이콥스 기사는 7일(한국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손흥민도 2024년 사우디 리그의 영입 타겟이다. 이미 기초적인 단계다. 계속해서 주시해야 한다"고 썼다.

올해 1월 세계적인 공격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를 영입한 사우디 리그는 이날 레알 마드리드 출신 간판 카림 벤제마(프랑스)의 합류를 알렸다. 벤제마는 알이티하드와 계약을 발표했다.

유럽 빅리그 출신 스타 선수들이 연이어 사우디의 막강한 오일머니에 반응하고 있다.

2021~2022시즌 EPL 득점왕에 빛나는 손흥민 역시 레이더망에 들어 있다는 게 제이콥스 기사의 주장이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은



2025년 6월 끝난다. 내년 여름이면 1년이 남는다.

영국 매체 팀 토크는 제이콥스 기사의 SNS 글을 인용해 "생각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계약 만료를) 1년 앞둔 시점에는" 사우디가 거액의 이적료를 제시할 경우 토트넘이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를 영입할 수 있을 만한 구단으로는 사우디 리그의 빅4로 불리는 알나스르, 알이티하드, 알hilal, 알아흘리가 거론된다.

모두 사우디의 국부펀드인 공공투자기금(PIF) 산하에 있는 구단들이다. 스타 영입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환경이다. 뉴스